

거북선축제 '통제영 길놀이' 다양한 퍼포먼스

내달 3일 오후 6시 축제 시작
시민·학생 등 3000여명 참여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 길놀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 행사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도 해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정해 승리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24일 여수시, 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3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 축제는 시민회관에서 시작해 중앙동 이순신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우렁찬 군악 연주와 퍼레이드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여수 신월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이순신 장군의 전통 복장을 하고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기마와 수군행렬을 이끌고, 거북선, 판옥선, 포작선, 옥수래, 영거, 진해루에서의 군사회의 장면 등을 재현하며, 왜적선(고바야)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작품들이 출현한다.

이번 통제영 길놀이에는 3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조선 중기의 복장을 입고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감동과 웅장함을 선사할 다양한 공연을 준비



5월3일부터 여수 시민회관 일원에서 거북선 축제가 열린다.

여수시 제공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거북선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과 참여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통제영 길놀이는 축제 실무를 총괄하

는 거북선축제보존회 전제민 상임이사의 지휘 아래 준비되었다.

전제민 상임이사는 "이번 축제에서 통제영 길놀이에 출연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섭외한 3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새

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응도가 떨어진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과거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소년이순신 선발대회, 용출다리기, 소동 줄놀이, 시조경창, 한시백일장 등의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둔덕동 실천본부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르네상스 운동 둔덕동 실천본부 본격 활동

여수시 둔덕동에도 '여수 르네상스' 다 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민운동 둔덕동 실천본부는 지난 22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친절, 질서, 청결, 봉사, 환경)을 적극 추진을 결의했다.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둔덕동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고유사업으로 석교다리에 꽃바구니 걸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실천본부는 둔덕동 11호 광장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교통질서확립,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달리는 국민신문고' 내달 22일 여수시청 온다

여수시가 5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다.

여수시민을 대상으로는 5월22일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여수시를 비롯해 인근 순천과 광양시민도 참석 가능하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개 민간기관에서 전문 상담 조서관 18명 상담한다.

이들은 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만나 생활 속 고충 문제 등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방송·통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서민금융 등 26개 부문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탄소중립지원센터,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개소

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한다.

센터는 △탄소중립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식 전남대 부총장은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위기 시대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이해관계자 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여수시 제공

협력 플랫폼으로 든든히 자리 잡아 여수시를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이끌어 갈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공공청사 일회용품 근절 '앞장'

1인 1텀블러 생활 실천

여수시가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솔선하고 나섰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공직자 실천서약', '1인 1텀블러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26일까지 진행된다.

시 전 직원은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 △인공기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활용

△일회용 사용 환경 개선 △매월 10일, 일회용품 ZERO 실천의 날 운영 등 실천에 힘쓴다.

캠페인은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계가 열리고 있는 용기공원 입구에서 출발해 무선성산공원, 미평공원, 국동임시별관, 해양공원 순으로 진행되며,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벼 병해충 공동 드론 방제... 내달 8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일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증진을 위함이다.

신청 농가는 ha당 3만1500원을 자부담하면 되고, 항공방제작업은 지역농협 방제단이 7-8월 중 1회 일제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벼 재배 3ha이상의 단지(마을)가 참여 가능하며, 희망 농가에서는 오는 5월 8일

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방제약제를 분사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사(양봉), 양식장, 타작물 인접필지 등은 비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에서 제외된다"며 "신청 전 신청농지 인접필지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